

요약

청소년참여 활성화기반 조성·정책 확대로 청소년의 주도적·일상적 참여 유도 필요

세계적 추세인 청소년참여, 한국은 미흡... 활성화정책 '발등의 불'

UN,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아동)청소년참여를 중요의제로 설정하면서 각국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는 세계적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사교육 투입 시간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입시교육 위주의 분위기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시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낮고 시정참여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도출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를 도출하여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문가들 “청소년참여는 권리·인권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3차에 걸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기본권, 즉,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2차, 3차에서 항목별 적절성과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이행을 위한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청소년참여가 정책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 방향으로 가장 먼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들고 있어, 기존 성인의 조력에 의한 참여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일회적이며 형식적인 참여를 탈피해 지속적인 청소년참여로 참여의 질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그간의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참여라는 한계를 탈피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청소년참여 활성화전략 1위는 ‘참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전원이 ‘예’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참정권 확대 쟁점에 대하여 조심스레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 외에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청소년 의견청취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참여역량 강화 교육과 인식제고 등도 중요성에서 전문가 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은 초점집단면담(FGI)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과 같았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정책 제안 등 청소년참여 활동을 해 본 결과 피드백이 부재하다는 점, 청소년참여가 학내외에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학생회 등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학내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중점과제로 정책참여 확대, 활동 강화 등 제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과 방향으로 1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의 3요소는 수준, 내용, 주체로, 이를 토대로 일상적 참여, 주도적 참여,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를 청소년참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참여의 가치와 원칙 실현, 제도적 여건 구비, 청소년의 다양성 반영이라는 전략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중점 정책과제로 청소년참여 기반조성 강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원 온라인으로 후보군 좁고 모든 활동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그간 청소년참여는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참여기구나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 정책참여의 지평을 열었으나,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자질 확보, 활동과 정책 제안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제안한다. 청소년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청소년의원 선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의원 모집 정보를 학교와 관련 청소년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공개모집으로만 진행하고, 온라인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이들이 청소년의원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모든 참여기구에서 청소년의원 구성 시 한부모,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 비례 할당을 보장하고, 운영 시 소수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원의 자질 확보 방안으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활동 및 정책 제안 피드백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 의정활동을 담은 회의록, 활동지, 성과보고서 등을 서울시청,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해당 청소년시설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참여 청소년에게는 참여 의의를 동기화하고 의원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 청소년에게는 정책참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참여의식 고조... 참여 시발점인 참정권 확대 단계 추진 필요

‘청소년에게 참정권을’이라는 강령은 오래된 구호이지만, 항상 정치적으로 이슈만 되고 진전이 되지 못했다. 현실적 장벽 이면에는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선입견과 학업만 우선시하는 교육 풍토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의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통계에서도 각종 선거에서 19세와 20세 초반(20~24세)의 투표율은 증가하였다. 사회·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정책·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면담을 진행했던 청소년 역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으로 참정권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정권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가장 유력한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에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점진적으로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